

# 도서관의 미래상은? ...질적 성장 방안 논의

책의 해 조직위 순천만 국가정원사 30일 '책 생태계 비전 포럼'

### '도서관, 내일을 말하다' 주제...시민단체 등 참여 도서관 미래 비전 맞는 정책 수립 모색해야

인구 감소와 AI로 대변되는 4차산업혁명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개관 시간 연장 등이 요구된다. 아울러 도서관의 미래 비전에 맞는 정책 수립 또한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미래 도서관 수요에 대응한 도서관의 질적 성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책의 해 조직위원회'는 '함께 읽는 2018 책의 해'를 맞아 오는 30일 순천만 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포럼을 개최한다.

'도서관, 내일을 말하다'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포럼은 총 10회에 예정된 책의 해 포럼 행사 중 6번째로, '도서관 도시'를 표방하는 순천에서 개최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도서관 진흥 5개년 계획 수립 과정과도 연계된다.

이번 포럼은 국민의 높아진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도서관의 미래상이 제안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 도서관 수요에 대응한 도

서관의 질적 성장 방안 등도 논의된다.

사실 2016년 말 기준 공공도서관 수는 1010개로 지난 5년 사이에 28%나 증가했지만 선진국 대비 격차는 아직도 큰 편이다.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 수는 5만1184명으로 독일의 1만595명보다 5배 많다. 즉 인구 비례로 도서관 수가 독일의 5분의 1에 그치는 실정이다.

인구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 수는 2.0권으로 일본의 3.4권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전문인력(사서) 확보율도 미흡하다. 초중고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사서교사, 사서)이 확보된 학교는 전체의 57%에 불과하며, 전국의 사서교사 수는 899명으로 전체 학교 수 대비 8%에 불과하다. 작은도서관의 37%에는 전담 직원이 없고, 병영도서관이나 교도소도서관 중 전문인력이 배치된 곳도 없다.

이번 포럼은 한국도서관협회 이용훈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광속진 교수가 '새로운 도서관을 상상한다', 서울도서관 이경수



'책의 해 조직위원회'는 오는 30일 순천에서 '책 생태계 비전 포럼'을 열어 도서관의 질적 성장 방안을 논의한다. 순천시 '기적의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아이들의 모습.

관장이 '도서관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사람, 사서'를 발표한다. 이어 내일신문 송현경 기자와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김기영 교수는 각각 '시민이 바라는 내일의 도서관', '책 생태계와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도서관 비전 세우기'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 시간에는 독서 관련 시민단체를 대표해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안찬수 사무처장,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박소희 이사장, 순천시립도서관 안문수 도서관

운영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한편 '책 생태계 비전 포럼'은 책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주체인 저자, 출판사, 서점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왔다. 9월 27일에는 독자 개발을 위한 '읽는 사람, 읽지 않는 사람'(독자·비독자 조사연구 결과 발표) 포럼이 열리고, '읽기의 과학'(10월), '북 큐레이션'(11월)이 진행된다. '책의 해 누리집(www.book2018.org) 참조. 문의 02-733-840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남도恨의 미학 형상화 문순태 문학 조명

### '문순태 소설의 시대정신' 작가론 등 22개 논문 실려

작가 문순태(80)는 남도 정서에 바탕을 둔 한(恨)의 미학을 끊임없이 형상화해왔다. 또한 피폐한 농촌의 삶과 80년 오월 광주, 분단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특유의 질박한 문체와 선 굵은 서사로 펼쳐왔다.

담양 출신의 작가는 1973년 '한국문학' 신인상에 '백제의 미소'가 당선돼 등단한 이후, 이후 우직하고 순박한 인간상을 다양한 작품에서 그려왔다. 주요 작품으로 '징소리', '걸어서 하늘까지', '타오르는 강'(대하소설 9권) 등이 있다.

올해 팔순을 맞아 작가 문순태의 문학을 조명하는 연구서 '문순태 소설의 시대정신'(국학자료원·사진)이 발간됐다.

한려대 정홍남 교수가 엮은 이번 연구서에는 고봉준, 김성재, 박선경, 심영의, 전홍남, 한순미, 홍용기 등 16명의 연구자들과 대학교수들이 발표한 22편의 연구논문이 실려 있다. 이번 책은 작가 문순태의 문학세계를 다룬 네 번째 연구서로, 이에 앞서 '고향과 한의 미학', '해한의 세계-문순태 문학연구', '생오지작가, 문순태에게로 가는 길'이 발간된 바 있다.

이번 연구서에는 작가가 2006년 광주대 문예창작과에서 정년퇴임을 한 후 '생오지'(담양군 남면)로 귀향한 후 발표한 소설을 중심으로 다른 논문들이 실려 있다. 한순미의 '(총)소리의



문명: 문순태 소설의 소리 풍경', 전홍남의 '문순태의 노년소설과 '생오지'의 생명력', 심영의 '광주라는 기억 공간' 등이

눈길을 끈다. 책은 모두 6부로 구성돼 있다. 1부는 작가의 생애와 삶이 비교적 잘 묻어나는 작가론을 포함해 소설의 특성과 운곽을 파악하는 데 보탬이 되는 글을 배치했다. 2부는 한국전쟁의 상처와 이념을 모티브로 한 분단소설과 5·18 등 굴곡진 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분석한 글이 주종을 이룬다.

3부와 4부는 각각 생태학적 상상력과 연동되는 글, 노년소설에 나타난 소통 및 치유와 관련된 글이 수록돼 있다.

5부는 소설에 나타난 고향과 탈향, '한'의 정서 및 여성담론을 아우르는 글이 수록돼 있으며 6부는 '타오르는 강'의 서사전략과 장소성을 규명하는 글이 주를 이룬다. 말미에 '작가와의 대담', 사진화보와 작가 연보, 창작집 및 저서 목록도 담았다.

책을 엮은 정홍남 교수는 "이 책은 팔순을 맞아 작가의 작품세계를 조명할 연구자들의 평문과 논문을 수록하고 있다"며 "남도 문학과 한국문학에 있어 의미 있는 작가로 자리매김 한 문순태의 문학을 정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전국 단위 젊은 문화연대 만들자"

### 청년문화캠프 전국문화해적대집결 대회 51개 단체 100여명 참여 광주서 열려

전국의 청년문화활동가가 지난 주말 광주로 모였다. 청년문화캠프 '전국문화해적대집결' 대회가 26일까지 1박 2일 동안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광주문화재단과 광주의 청년문화단체 21개가 모인 '상상실현네트워크'가 공동 운영했으며, 광주의 청년문화단체 청년문화허브 정두용 대표가 총감독을 맡았다.

행사가 열린 이날 서울, 인천, 울산, 강원 원주 등 전국 각지에서 청년문화활동을 하는 51개 단체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김윤기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도 참석해 청년활동가의 새로운 도전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전국 단위의 젊은 문화연대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각자 다른 출발선에서 달려온 이들이 한데 모인 이유는 '문화로 먹고 살기' 위해서다. 기성 문화예술계에 밀려 실패를 거듭하는 청년 문화계가 서로를 지켜주는 울타리를 마련키로 한 것이다.

참가 단체들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와 같은 지속적인 연대를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향후 출범계획과 운영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광주에서 3년 동안 청년문화활동에 몸 담았던 한 1인 기업가(31)는 최근 대전이나 전주로 근거지를 옮길까 고민 중이다.

그는 "대학 전공이었던 음악을 뒤로 하고 청년문화에 뛰어들었지만 현실적인 여건에 부딪혀 버티기가 힘들다"며 "다른 지역은 임박·예산 의결을 청년이 주도하는 사례가 많지만 광주는 청년이 목소리를 낼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자들은 이와 관련해 청년활동가가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라운드테이블' 토론도 진행했다.

▲문화예술인 일자리와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인건비 ▲청년문화공간 ▲민간 주도 행정기관과 협업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자유 토론에 앞서 윤준혁 엘리파이트 대표와 강동준 섬여행학교 대표, 윤덕현 청춘협동조합 이사장 등 전국 24개 단체 대표가 강단에서 청년활동가로서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주는 시간을 가졌다.

정두용 사단법인 청년문화허브 대표는 "이제 청년은 문화를 소비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시민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지역, 세대, 분야를 떠나 청년문화를 함께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서진호 광주성악콩쿠르 1위

2018정음성악축제 '광주성악콩쿠르' 1위에 바리톤 서진호(사진)씨가 선정됐다.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25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광주성악콩쿠르 본선을 진행하고 1위 서진호 씨 등 입상자 11명을 발표했다. 이날 11명의 본선 진출자들은 정음성악곡을 시작으로 한국 가곡, 오페라 아리아 등으로 기량을 겨뤘다.

서울시립대학교를 졸업한 서씨는 정음성악곡 '매령상장', 장일남의 '신고산 타령', 오페라 '안드레아 세니에' 중 '조국의 적' 등 3곡을 불렀다. 1위를 수상한 서씨는 상금 1500만원과 함께 '정음성악축제' 협업의 기회가 주어졌다.

2위 고병준(중앙대 졸) 씨, 3위 김민석(한국예술종합학교 졸)씨가 뒤를 이었고, 정음성악곡상은 정인호(서울대학교대학원 재학)씨, 우리 가곡상은 서진호(서울시립대 졸)씨가 수상했다. 광주·전남 출신 참가자에게 주어지는 향토상에는 테너 박관희(전남대 졸)씨, 고향상은 각각 김병강(연세대 졸), 김수민(이화여대 졸)씨가 이름을 올렸다. 반주상은 피아니스트 오현미(독일 뷔르츠부르크 국립음대 재학)씨가 받았다.

광주성악콩쿠르는 정음성의 음악을 알리고 성악 신인을 발굴하기 위해 11회째 진행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금호그룹 창업주 박인천 회장 자택 개방

### 금호시민문화관으로 탈바꿈 다음달 4일 개관식

금호그룹 창업주인 고(故) 박인천 회장의 자택이 시민문화관으로 개방된다.

26일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에 자리한 박 회장 자택이 금호시민문화관으로 탈바꿈해 내달 4일 개관한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은 1984년 작고한 박

회장의 유지를 받아 자택을 시민문화공간으로 꾸민다고 개관식을 가진 뒤 상시 개방하기로 했다.

금호시민문화관은 자택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되 미술품 등의 전시공간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춘다. 입장 가능 시간과 휴관일, 입장료 등 세부 운영 계획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이 집의 개별공시가격은 지난해 기준 58억1000만원으로 광주 개인주택 가운데 가장 비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김원중의 달거리' 공연 장소 빛고을문화관으로 변경

27일 오후 7시30분 열리는 '김원중의 달거리' 100회 기념 공연 장소가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남구 구동 빛고을시민문화관으로 변경됐다. '김원중

의 달거리' 측은 "27일 저녁 시간대 비예보로 인해 공연 장소를 변경한다"고 26일 밝혔다. 문의 010-3670-5802.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CMTECH  
(주)씨엘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시름,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엘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특허공법 1.시공전 2.단열베이스캐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무료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난연소재

완벽한방수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내구성UP 맞춤형디자인

특허공법·디자인방수·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 (062)511-0444  
전남 (061)284-0485  
H.P 010-6603-0405

검색창에 '이파엘지' |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6년무상 A/S보장 정기점검